

영(影) 리

원래는 해녀가 있었다. 스쿠버 다이버와 다르게 산소통 하나 매지 않고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며 해산물을 수확하는, 그런 직업이 있었다. 하지만 이 직업의 대(代)가 이어지기에 인류는 너무 약했다.

영 리의 증조할머니는 ‘해녀’였다. 증조할머니는 밀레니엄 베이비로 태어나 그 시절에도 저의 세대에는 흔치 않았던 직업인 해녀라는 직업을 택했다고 한다. 영 리는 유독 자신을 예뻐했던 증조할머니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 그때 증조할머니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80여 년 전에는 산소통과 특수복 없이도 바다에 마음껏 들어가 ‘전복’이라는 해산물을 캘 수 있었다고. 그런 꿈같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증조할머니는 그 때의 바다는 푸른빛이었고, 태양빛을 받은 아름다운 잔물결들은 지금의 시커먼 폭풍 치는 바다와는 달랐다고

말했다. 어린 영 리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마다 눈을 반짝이며 자신도 커서 해녀가 될 것이라고 소리치곤 했었다.

그로부터 십여 년 후, 21세기의 마지막 해, 드림시티 정부는 스쿠버 다이버를 모집한다.

*

- **RY-sd170** 이륙합니다. 이륙합니다.

- **DP-ek140** 이륙합니다. 이륙합니다.

두 대의 비행 잠수함의 이륙을 알리는 날카롭고도 비장한 안내음이 무전기를 타고 들려오자, 나는 마음을 다잡고 컨트롤 패널로 시선을 돌렸다. 잠생각 따위를 할 시간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주일동안 인류의 공포인 바닷속에서 생존해야했고, 일정은 가득 차 있었다. 처음 이들은 목적지인 북극해 한 가운데 부근 지름 100km 정도를 잠수함을 타고 이상 물질이나 생명이 있는 지 탐색한 후, 셋째 날 부터 여섯 째 날까지는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야만 했다. 그리고 우리는 피부로 바닷물을 느끼며—물론 특수복을 입고— 하루에 한사람마다 약 지름 5km 정도 범위를 특이 사항을 기록하고 영상을 찍으며 탐구했다.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는, 지금까지의 훈련과는 차원이 다른 무서운 실전이었다. 나는 귀를 뚝뚝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며 줄리와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오랫동안 그려왔던 날이잖아 그토록 그리던 바다야. 딴 생각 하지 말자.

머릿속을 잠식하는 생각들을 접어두고 마주한 비행 잠수함의 강화유리 창 너머 시커먼 바다는 어릴 적 꿈꾸던 푸른 바다보다 훨씬

무서웠다. 중력이라는 것을 모르고 높이 솟구치는 파도와 몇 백 미터 밖에서도 쉽게 보이는 폭풍들이 모든 것들을 쉽게 잡아먹을 성싶었다. 하지만 그런 부가적인 것들은 스쳐지나가는 듯 인생에 걸쳐 그려왔던 새로운 세계, 그곳에 지금 뛰어든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자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나는 심장 부근에 손을 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대감과 환희가 찢겨져 폭죽처럼 터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아직 안정되지 않은 기체 안에서 착석하고 있었던 좌석의 벨트를 풀고 창 가까이로 다가갔다. 규약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지만 난기류는 없었다.

한껏 들뜬 마음을 붙잡고 나는 본부와 또 다른 비행 잠수함에 정상 착륙 신호를 보냈다.

DP-ek140 정상착륙. 정상착륙. 1분 내에 해저 100m가량 까지 잠수할 예정입니다.

DP호에 타고 있는 다른 네 명의 팀원들은 벌써 각 자리에서 레이더를 작동시킬 준비 중이었다. 나는 팀원들이 앉아있었던 주황색 의피로 된 좌석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향했다. 다른 잠수함도 우리와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정상 착륙했다는 신호를 받자마자, 우리는 매뉴얼을 따라 주어진 일을 시작했고 이틀 간 묵묵히 바쁜 일정을 수행했다.

2일차까지는 별 탈 없이 수월한 작업의 반복이었다. 해양생물의 멸종을 예상한 몇몇 학자의 의견들과는 다르게, 의무 교육 시설에서 공부한 해양 동물과 유사하게 생긴 생명체들을 발견한 것 외에는 별다른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자 우리는 곧바로 다음 계획을 실행했고 특수복을 입고 바다에 직접 뛰어들었다. 차고 힘겨운

육체노동이었지만 훈련대로 열심히 영상을 찍고 3km 지점마다, 수십
별로 물을 채취했다.

나는 그저 내가 지금 바닷속에 존재해서 물을 휘젓고 다닌다는 것에
감격할 뿐이었다. 꼭 증조할머니가 80여 년 전 해녀복을 입고 바다에
존재했던 것과 같이. 그래서 좋고 슬펐다.

1세기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구가 겪은 수많은 일과 엄청난
변화는 바다처럼 짠 눈물이 흘러나오게 만들었다. 나는 바닷물 맛을 볼
수 없었고, 잠수복을 입고 있었기에 내 눈물이 바닷물과 섞일 일은
없었지만 둘의 염도가 비슷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

2020년 전 지구를 강타한 바이러스 이후 세 차례의 더 강하고 질긴
바이러스를 겪으며 인류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고 환경은 파괴되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초소형 무선 이어폰 하나로 인류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비행 자동차 또한 보편화 되면서 인류는 환경이
파괴된 지구에서 위기를 탈출할 방안을 세울 수 있었다. 급격하게
상승한 해수면, 오염된 토지와 공기를 피해 인류는 공중으로 향했고
드림시티라는 하나의 거대한 공중 도시를 세웠다.

농산물은 새로운 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적당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최첨단 온실에서 재배가 가능했다. 인류와 같이 가축들 또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 곤충과 실험관에서 배양한 세포조직으로
새로운 단백질 식량을 만들어 냈다. 또 지상의 오염된 물은 마실 수
없을 정도로 파괴 되었기에 물은 바다 심층 부분에서 호스로 끌어들이
정화한 후 마실 수 있었다.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그저 해산물 정도 밖에 없었다. 북극의 빙하가
거의 전부 녹으면서 해일과 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해졌고 모든

것을 삼킨 시커먼 바닷물은 인류에게 공포였다. 바다의 엄청난 파도는 하늘 위를 달리는 비행 자동차도 쉽게 잡을 만큼 무서운 존재였다.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복잡한 정화 과정을 거친 바닷물과 비의 양은 한정되어 있었기에, 수영장과 같은 사치 시설은 드림시티에서 최고층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수영을 할 수 있는 최고층 사람들은 당연히 무서운 바다에 뛰어들기를 꺼려했다. 이에 정부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최종 선발에 뽑히는 12명에게는 *5000데나리온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의아해 했다. 아무리 바다가 무섭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그 밑에서 무슨 일을 하기에 50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시커먼 바다의 공포를 체험해 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때문에 드림시티 내에서도 최상위 계층의 발밑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바다로 떠나겠다고 지원했다.

평생을 공중에서 나고 자란 나는, 증조할머니의 이야기로부터 비롯된 감추어야만 했던 호기심과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해녀’에 대한 가망 없었던 꿈을 다시 품고 모집에 지원했다. 지원자들 중에 나와 같이 지원 목적이 보상금이 아닌 사람은 극히 적었다.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우선순위로 선발되었고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면접들이 몇 차례 더 이어졌다. 나는 초점 없는 눈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의 뜻을 마음에 품고 운이 좋게도 최종 선발 인원에 들었다.

최종 선발된 여자 다섯 명, 남자 일곱 명 중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 두 명이었다. 그들은 상위층 사람들이었다. 남자들보다도 키가 한 뼘은 더 큰 주황머리 여자와 다부진 체격에

¹ 데나리온'은 드림시티에서 사용되는 공용 화폐의 단위로 1데나리온의 가치는 '백만 원'이며, 성경에서 착안하였다.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짧은 머리의 남자, 줄리와 노아였다. 그들은 모든 시험 과정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목적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스쿠버 дай버 모집에 왜 고고한 상류층 사람이 지원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잠시, 휘몰아쳐 오는 바쁜 일정에 나는 정신을 차리기도 버거웠다.

새벽 기상 에 기초 체력 증진 활동과 수영, 잠수 훈련을 해야 했고 잠수함 조작 방법도 체계적으로 배웠다. 잠수 훈련을 할 때마다 정화된 물이 아닌 정체 모를 끈적한 액체 속에서 잠수복을 입고 버티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으며, 폐수로 인한 바다의 오염물질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얗고 쓴 알약도 섭취했다. 약을 섭취할 때마다 몸은 겪어보지 못한 독한 화학 물질에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어지럼증과 생리불순은 매달 찾아왔고, 그곳에 있는 여자들 모두 같은 증상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로 뛰어든 그날을 고대하며 감내했다.

나는 자연스레 고된 훈련을 같이 하며 살을 맞대고 생활한 동료들과 가까워졌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처음부터 수영을 할 수 있었던 또래 여자, 줄리와 같은 꿈을 공유하면서 뜻을 함께 하게 되었다. 꼭 바다를 탐험하며 함께하자고 말이다.

내가 그녀가 왜 스쿠버 다이버 모집에 지원했는지를 물었을 때, 줄리는 나와 같이 어릴 적부터 바다에 뛰어들어 자유롭게 헤엄치기를 갈망하며 목말라 있었다고 했다. 나는 줄곧 즐겁게 증조할머니의 바다에 대해서 설명하곤 했다. 몸을 억누르지만 해방감을 주는 차가운 물방울들과 물 안에 존재한 생생한 생명체들에 관하여,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들을 뽐내 듯 말했었다.

줄리는 또한 말했다.

“여기는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 너의 생각보다.”

의도도, 이유도 모를 말을 나는 그저 힘든 훈련의 투정 또는 의미 없는 혼잣말 정도로 받아들였다.

줄리는 한 번도 의미 없는 낙서가 그려진 적 없는 도화지 같았다.

그녀는 드림시티 건설을 추진한 건설 회사들 중 지분이 큰 대기업 집안의 여자로 태어나 공중 도시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누리고 항상 특권을 지니며 살아왔다고 했다. 드림 시티의 모든 요소들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었으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구김 없이 자랄 수 있었다. 다수의 평판을 신경 쓰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되지 않는 안하무인의 군림자들, 그들이 바로 줄리의 곁에서 그녀를 지키는 어른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보호막을 이해할 수 없었다. 머리와 마음으로 옳다고 여기는 일들을 말로만 이야기하고 그에 반하는 악행을 일삼는 선한 어른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 주변에, 그녀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그릇되어도 그런 모순들을 소화할 수 없었다. 태어나기를 그렸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척추 뼈로 올라선 이 자리를 견디기 어려워했다.

그렇게 그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가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서 인지는 내가 추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

“영 은 모르고 있지,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을.”

그가 말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알고 있는 사람은 너와 나, 두 사람 밖에 없어.”

그녀가 말했다.

“그래, 알고 있어. 내가 너에게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한 거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이게 맞는 일인가 싶어.”

“.....”

남자는 눈앞의 상대가 말이 없자 방금 전 보다 어딘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조금 신이 나 보이기까지 하는 얼굴이 되었다가, 이를 여자가 눈치 채기라도 할까 서둘러 다시 표정을 가다듬었다. 찰나였던 순간을 여자는 알아채지 못한 듯싶었다.

“노아, 이건 불의해. 해양도시는...”

“소리 낮춰, 누가 들을라.”

여자가 침묵 끝에 입을 열었지만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슬픈 얼굴로 말을 막을 뿐 이었다.

*

평소와 같이 고된 훈련을 마친 어느 날, 본부의 로비에서 동료들과 곧 있을 탐사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나누며 담화를 하고 있던 나는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처음 들어보는 익숙치 않은 높은 떨림을 따라 제2연구실로 향했다. 줄리가 인시드 프로젝트의 총괄 담당자에게 언성을 높여 따져들고 있었다. 그는 어딘가 거부감이 들었지만 평판은 좋은 편이었으며, 줄리와 말다툼을 할 이유라곤 없었다.

줄리가 다투는 모습을 보며 나는 본능적으로 떨었다. 손끝을 떠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 안의 두뇌 끝이 떨리는 것 같았다. 몸이 떨리자 마음도 붙잡혀 같이 떨렸다. 정확한 말소리는 단혀있는 문을 뚫고 전달되지 않았어도 굳게 닫힌 철문의 중앙, 네모나게 나 있는 유리창으로 둘의 상황을 볼 수 있었기에, 그들의 말소리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면이 나에게 와 쫓혔다. 줄이는 마음을 후비는 바늘이었다. 나는 바늘을 뽑으려 세계 주먹을 쥐었다 폈다.

줄리는 창백한 얼굴로 어이없다는 제스처를 하며 말을 쏘아댔다. 그러면서도 얼마 후 탐사를 갈 북극해 지점에 미리 보낸 드론에서 오는 알람인 뾰족한 기계음을 체크하기도 했다. 언쟁하고 있는 상대를 뒤돌면서까지.

나는 줄리의 돌발행동에 적잖이 두려워졌다. 구겨질 줄을 몰랐던 뾰뻑한 종잇장이 마구 분노하는 것을 볼 때에나 느낄 수 있는 이질적인 감정이 들었다. 오래 전 곪은 상처의 딱지가 예고 없이 나에게서 떨어져 가는 상황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깨끗하고 질 좋은 도화지가 아니었기에 저런 발언을 마음껏 튀기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상사인 그가 초소형 무선 이어폰을 바닥에 던져 버렸다. 줄리는 웃었다. 비웃음에 가까운 조소를 연구실에 흘뿌렸다. 그러면서 싸움 아닌 싸움은 모래성이 바람에 날려 소멸하듯 끝이 나게 되었다. 당황스러운 웃음과 언쟁에 대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지쳐 보이는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캐물어봤자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으며, 그렇게 해서까지 그녀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말을 아꼈다.

최종선발 인원에 들기 전 부터 수영이 가능했던 둘 중 줄리를 제외한 나머지 한명의 남자, 노아만이 그 뒤 줄리에게 다가가 몇 번 무신경적인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 이후 상황은 더 악화 된 것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영킨 실을 풀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끝에 결국 영킨다 못해 매듭이 지어진 실 뭉텅이를 누군가 칼로 절단한 것 같은 기분. 절대 영킨 실 사건이 원만히 해결됐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숙소 침대에 누워 내일 있을 잠수 훈련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좀 전의 다툼에 대한 생각이 부푸는 것을 멈추기는 힘들었다.

‘감’이었다. 좋지 않은 예감은 틀리지 않다고,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모든 세포들이 이걸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다. 나만 모르는 어떠한 비밀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지만 극단적으로 치닫는 생각은 잠을 설치게는 했어도 오히려 나 스스로 내 생각을 비웃으며 생각을 멈추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전날 줄리는 말했다.

“너는 옳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중 무엇을 고를까, 영 리?”

줄리는 내게서 대답을 듣지 않고 이어 말했다.

“머리와 마음이 같은 곳을 향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할지도 몰라, 나에겐.”

그리고 줄리는 인시드 프로젝트에서 제명당했다.

*

인시드 프로젝트 5일차, 팀원 한 명이 실종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즉시 우리는 본부에 현재의 비상사태를 알렸다. 15시 26분경 첫 메시지를 보내고 몇 분 뒤, 원래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원 인력이나 인명 구조 비행선 등을 보내달라는 요청에는 답변이 오지 않았다. 나와 노아를 비롯한 두 명의 나머지 팀원들이 모두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DP호에 달린 네 개의 레이더로만 없어진 팀원을 찾자, 본부에서는 DP-ek140 탑승 5인 전원 속히 복귀하라는 메시지가 우리를 막았다.

바다, 내 모든 것을 삼킬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토할 수 있는 바로 내가 꿈꾸던 바다. 고된 준비를 마치고 비장한 마음으로 11명의 팀원이 비행 잠수함에 발을 딛는 순간에도 우리가 저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기분이었다. 6개월 동안 훈련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우리는 바다로 가는 진짜 이유를 듣지 못했었다. 워선에 물어보면 ‘너네들이 하는 것은 그저 더 워분들에게 보여주는 잠행, 인시드 프로젝트다.’ 라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 되면서까지 워분들에게 보여주기 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팀에서 제명당한 동료들 바라보면서 독하게 버티는 게 진실로 내가 꿈꾸어왔던 일인가, 하는 생각을 억누르는 것만이 내가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또 겪다니. 순간 머리에 열이 올라 곳곳이 두 발로 서 있는 내가 잠수함 내부 바닥에 누워 있는 것 같다고 느껴졌다.

내면에서부터 비참한 감정이 슬금슬금 새어나와 마침내 큰 웅덩이를 다 채웠을 때 노아는 다음 날 본부로 돌아가자는 말을 꺼냈다. 지독하게 무심한 투였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지금 나의 심정을 철저히 무시한 말이었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의 동료애가 무심하게 짓밟히는 말이었다.

*

몇 번의 발악과 다른 팀원들의 제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던 흥분은 측정하기 힘든 무기력함과 허무함을 거치자 빠르게 식었다. 나는 지친 몸과 정신으로 까무룩 기절하듯 잠드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수심과 같이 더 깊숙하고 암담하게. 그런 모양과

마음으로,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떤 말을 뱉었는지 기억하는 것은 내게 너무 힘든 일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다른 팀원들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잠들어있었다. 나는 꿈인가 싶은 내 상황을 타인의 상황을 들여다보듯이 생각하며 그대로 계속 누워있었다. 귀에서는 벌레가 우는 것 같은 기분 나쁜 머리를 울리는 이명이 들렸고, 규칙적인 울림 사이에서 이질감을 주는 또 다른 소음이 하나 섞여 들어 고막을 자극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좌절하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의지도 없었던 조금 전까지와는 다르게 나는 이질적인 소음이 못 견디게 거슬리기 시작했다. 평소 귀가 예민한 편도 아닌데다, 소음과 같은 사람을 괴롭히는 귀찮은 것들에 무심한 편이었는데 현 상황에서 이 소리는 마치 원인을 어서 까발리라는 아우성처럼 들렸다.

나는 흘린 듯 소리의 원천을 찾아 희미한 빛을 찾았다. 어느새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지 파도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이는 내가 찾던 소음이 아니었다.

“...히 돌아오도록, 성가시게 구는 것들은 그냥 알아서 처리해.”

“.....”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망설이는 거지? 너네들이, 아니 네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다 끝냈다. 실종자가 있다는 것도 시끄러워지지 않으려면 그냥 덮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주드, 지금 상황으로서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를 노아와 총괄 팀장의 대화 도중 팀장의 얼굴이 송출되던 홀로그램 모니터에서 갑자기 5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의 얼굴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나타났다.

“드림시티가 건설된 지 삼십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저 땅 밑바닥에 두고 왔던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직도...”

“그만, 그만. 보안 팀은 또 뭘 하고 있는 거야. 노아, 보고는 여기까지만 듣지. 무슨 일이 있어도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송출되던 홀로그램이 꺼지고, 침울하기 그지없는 표정을 한 노아의 얼굴이 시커먼 바다를 보여주는 강화 유리 창에 반사되어 비쳤다.

“에...”

들리지 않을 대답에서 희망이나 각오 따위는 묻어나오지 않았다.

나는 인기척을 숨겼던 것을 생각 못하고 곧바로 노아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노아는 내가 예상했던 당황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파도 없는 바다보다 더 고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가 있었던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원망스런 말들을 쏟아 부어도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입술을 바라보며 시선을 아래로 돌렸다. 지금 내 감정을 노아에게 내비치고 싶지 않았다.

영원 같은 정적. 아니, 정적이라기엔 뭐한 이따금씩 들려오는, 잠수함의 철제 벽면에 부딪혀오는 파도 소리가 이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내게 각인시켜주고 있었다.

“줄리는 알고 있었어.”

“.....”

나는 한순간 노아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 사이의 공기를 뚫고 내게 흘러오는 말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리, 이걸 그저 윗선에 보여주기식 잠행이나 해산물 채집을 위한 탐사가 아니야.”

그는 지금 프로젝트가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자신이 한 무의미한 행동을 자랑하듯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인간은 똑똑하고도 또 그만큼 악독해서 인간이 또 다른 인간과 자신을 위해 행하는 모든 행동에서 행하는 순간마다 생겨나는 부가적인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30여 년 전 건설된 드림시티는 위태로우며 물과 해산물, 그리고 공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공중 도시, 그러니까 드림시티는 땅 위의 많은 사람들을 버리고, 짓밟고 올라 선 도시라고 말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우리는 드림시티 건설 이전의 세계를 몰라. 건설 될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우린 알지 못해.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밟고 드림시티 위로 올라올 수 있었겠지. 없는 사람들은 오염되고 갈라진 땅 위에서 썩어나든 말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건 드림시티 안에서조차 마찬가지야.”

나는 예전부터 줄곧 품어왔던 ‘윗선에 보여주기 식 프로젝트라면 왜 가장 넓고 수심도 깊은 태평양이 아닌 북극해 탐구인가’ 하는 의문이 순간 상기되며 몇 시간 전에도 흘러나오지 않았던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그게 지금 이 상황이란 무슨 상관인건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이건 인시드 프로젝트가 아니야. 드림시티 정부는 우리의 공중도시를 버리고 해양도시를 세울 계획이라고.”

나의 떨리는 말끝을 눈치 챘는지 노아는 반문하며 빠르게 말했다. 노아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말의 내용을 감당하지 못하겠는지 조금 흥분한 듯 보였다.

“해양 탐사를 상식적인 곳에서 안하는 것도, 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한 것도 모두 해양도시를 위해서라고? 줄리도 이것 때문에…”

노아는 침울하게 고개를 떨구었다. 방금 안 부인하고 싶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의문이 가라앉고 속 안에서 복잡하게 얽힌 기분이 해답을 찾았다고 환호하고 있었다.

“영 리, 우리가 이 비행 잠수함에 타는 순간 우리는 해양 도시에 입성할 수 있는 티켓을 가지게 된 거야. 팀장이 약속했어, 이거야 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거야.”

나는 그 약속을 진심으로 믿냐고, 네가 그 조건을 요구한 것이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 속 아주 작은 욕구를 무시했다.

나는 그가 부른 ‘이영’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없었다.

*

‘여기는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 너의 생각보다.’

언젠가 줄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속뜻을 예측할 수 없었던 말을 이제야 완전히 공감할 수 있었다. 인시드 프로젝트를 진행한 곳은 온갖 것들로 오염되고 폐수가 섞인 바닷물보다도 깨끗하지 못했다. 드디어 깨달을 수 있었다.

어쩌서인지 말을 꺼내던 줄리의 얼굴을 기억해 낼 수 없었다.

노아의 말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최소한의 장비만을 몸에 걸치고 바닷속에 뛰어든 준비를 했다. 특수복도 입지 않고, 무엇을 위해 지금껏 부작용을 감내하며 약을 먹어왔으며 또 못할 건 무엇인가.

견디기 힘든 차갑고도 뜨거운 물에 뛰어들자 짠 기운이 혹 끼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심장을 채워나갔다. 내가 튀기는 물방울을

눈에 새기며, 마음에 새기며, 최소한의 잠수를 하며 나아가자 물속의 생명체를 마주쳤다. 아름다운 비늘을 지닌 ‘물고기’였다. 아랫배 지느러미와 꼬리에 주황빛이 도는, 전체적으로 바위색 점박이를 가진 물고기였다. 물고기와 이토록 가까운 자리에서 마주쳤다는 사실에 감격하기도 잠시, 공포에 질린 눈을 마주하자 그 만족감은 물방울과 함께 다시 넓게 흩어졌다.

그래, 본래 해녀가 있었지만 이 직업의 대(代)가 이어지기에 인류는 너무 악했다.